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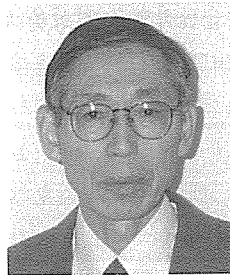
평준화와 동등의 문제점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나 동등과 평준화를 내세워 키워야 할 인재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소를 세우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수한 학생에게는 그에게 맞는 과목을 가르쳐야 평등이지 모든 학생에게 같은 것을 가르친다고 평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입생을 선발하고 교수를 채용하는 일은 완전히 학교측 자율에 맡겨야 한다. 획일적인 동등·평준화 아래선 일류대학 육성과 세계적 과학자·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동안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오면서 인간이 가져야 할 자유와 평등의 기본권리 사상이 동시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동등이어야 할 곳에는 동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많은가 하면 동등될 수 없는 곳에 동등이란 개념이 너무 깊이 적용되어 여러모로 발전도상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아래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은 재언할 필요도 없겠다. 사회적 혹은 인간적 동등권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려하지 않지만 동등하게 될 수 없는 일에 동등이란 개념 혹은 사상이 우리의 교육계에 깊숙이 잘못 적용되어온 점이 많이 있어왔고 또한 오늘날도 계속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며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말해 볼까 한다.

동등개념 교육계 잘못 적용

우리나라에는 현재로 세계적 상위권에 드는 대학교도 없고 연구소도 없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세계 최상급에



金 洵 圭
(미 코네티컷대학교 수학과 명예교수)

달하는 수학자, 과학자 혹은 과학기술자도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의 현대식 교육, 연구 등에 전통과 배경이 없고 역사가 짧다는 것이 한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해방된지 50년이 넘는 오늘쯤에는 세계적인 대학도, 연구소도 또한 학자도 있을만 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아직은 없다. 우리 민족 가운데 뛰어난 두뇌를 가진 자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우리 민족은 열심이 부족하여서 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등학교를 평준화시켰다. 평준화는 좋으나 평준화된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과

목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가진 재능은 다르건만 그들이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같은 정도 뿐이었다. 우수한 학생에게는 그 정도에 맞는 과목을 가르쳐야만 평등이지 모든 학생에게 같은 것을 가르친다고 꼭 평등이 되는 것일까?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이 같으니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 학생이나 삼류대학 학생들이 가진 지식은 같은 정도이고 다만 지극히 사소한 것을 좀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차이 뿐이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또한 같은 정도에서 교육이 시작될 수밖에 없게 된다. 언제 이런 정도의 학생을 길러 일류급 학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소속한 학교는 코네티컷주 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자격있는 교사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학교의 기초과목들을 가르치게 하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게되면 대학에 가서도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우수한 자질의 소유자들에게 그들의 자질에 알맞는 교육은 일찍부터 시작되어 대학을 거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는 연구생활을 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모든 자질과 талан트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주어야 할 것이다. 세계의 으뜸을 지향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또한 연속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와 같이 빨리 변화하는 과학기술계에서는 잠시도 쉴 여유를 주지않는다. 중단되었다가는 다시 정상궤도의 연구에 들어가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생활이 중단 혹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속적인 육성의 교육적 투자가 있어 야만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노벨 상이나 필드메달같은 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 대학·학자 배출 못해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세계적 일류급 대학교가 없는 것 같다. 왜 세계적 일류의 대학이 있어야 하는지는 알기알부하려 하지 않는다. 세계적 일류급 대학교라면 첫째 일류급 학생이 있어야 하고, 둘째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교수진을 가져야 하며, 셋째 일류급 시설을 가진 대학이어야 할 것이며, 넷째 일류급 학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학교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교가 세계적 대학이 될 수도 없거니와 그러기를 꼭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몇개의 대학교 혹은 한두개 대학교라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학교를 가지기를 바랄 뿐일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모두 일류대가 될 수는 없는 일이고 나아가서 대학교가 모두 연구중심 대학교가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경쟁하며 더 좋은 대학교가 되려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모두가 일류가 되려하면 한 대학도 일류 대학교로 성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세계적 일류가 되려면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기에 제한된 경제적, 인적 자원을 가진 우리가 많은 일류급 대학과 연구중심 대학을 가지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선발적 대학교 육성이 필요하게 된다. 가능성이 있는 대학교를 골라 지속적으로 육성을 시키는 것이다. 사립대학은 재단 혹은 학생의 등록금 등으로 운영되고 국·공립대학은 주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립대학교

라 하여 꼭 국고에만 의존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다. 미국의 유명한 주립대학교들을 보면 주 예산에서 나오는 학교 운영비가 전체 운영비의 삼분의 일도 못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교마다 자체의 기금을 마련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구비 보조 및 기부금 등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일류를 지향하는 대학교라면 꼭 국가가 투자하기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체 기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 모든 대학교가 연구중심 대학이 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라고 모두가 연구중심 교수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라고 모두 일류급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교수들에게 주는 연구비 또한 선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나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연구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비의 지급이 선별적으로 효과 있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연구비가 나오면 그 그룹에 속한 모든 교수들이 골고루 나누어 갖는다고 이야기를 들은바 있다. 연구비는 연구자의 연구능력과 연구업적이 있는가를 잘 평가하여 주어지되 모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선발된 우수연구원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대학교의 발전은 필요한 외부의 재정적 투자가 있어야 하지만 대학교들의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특히 신입학생을 선발하는 일이나 교수를 채용하는 일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일이니 완전한 자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입생의 선발과 교수의 채용에 각 대학들의 특색이 나타나고 대학들의 우열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들을 선발

하는데 한가지 국가적 지능시험 성적만으로 결정된다면 각 대학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선발·교수채용 완전 자율로

교수의 채용도 또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학교의 교육이념과 설립 목적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우수한 사람을 가장 공정한 방법에 의해 선발하여야 할 것이며 그 우수성의 판단은 그 방면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들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일에는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요즘 들리는 이야기로는 대학교수를 채용하는데 자기학교 출신은 얼마 이내로만 채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가장 우수하고 그 분야에 가장 적당하며 그 학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교수가 얼마 이상은 그 학교 출신은 아니어야 한다는 말인가. 물론 소위 학문적 동종번식이란 문제점이 있기로 이런 구상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동종번식이 문제라면 차라리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은 박사학위 후 적어도 몇년 이내에는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는가. 동등과 평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세계적 일류대학교가 나오며 세계적 학자를 배출하고 노벨상이나 필드메달상같은 세계적 대상을 바랄수 있을 것인가. 꼭 우리가 세계적 일류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일류의 대학교, 일류의 학자 그리고 노벨상을 바란다면 인재를 키워야 하고 자본을 투자하여야 하며 앞서 가는 자들을 적극 밀어 올려주어야 할 것이다. ㉞